

[흙의 날] “토양을 잘 관리해야 국가 번성...당신이 흙기사입니다”

입력 : 2022-03-09 00:00 | 수정 : 2022-03-14 10:01



미리 보는 '흙의 날' 토크쇼

김계훈 교수 등 전문가 참석 기상이변 등 지구 위기 논의

AI 활용한 흙 관리방법 제시

흙의 날 기념식 온라인 개최 NBS한국농업방송서 생중계

강물도 얼어붙었던 2월말 어느 날, 경기 양주에 있는 한 식물원 카페에서 흙의 날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토크쇼 사전촬영이 진행됐다. 땀 흘린 바깥과 달리 실내는 초록색 식물이 뿜어내는 생기로 가득했고, 꼭두새벽부터 바빠 움직인 촬영팀이 제작현장에 활기를 더했다.

'탄소중립 시대, 당신이 흙기사입니다'라는 주제로 열린 토크쇼에는 김계훈 세계토양학회 전 부회장(서울시립대 환경원예학과 교수), 이승헌 한국토양비료학회 부회장(한국농어촌공사 환경산업부장), 서현권 농업 인공지능(AI) 전문가(세종대학교 스마트생명산업융합학과 교수)가 패널로 참석했고, 김경란 전 KBS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았다.

우리나라에서 흙의 날이 제정되기까지의 과정을 김계훈 전 부회장이 설명하고, 이승헌 부회장이 흙의 날 기념식에 얹힌 일화를 이야기하며 토크쇼 촬영이 시작됐다.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발생하는 기상이변, 이로 인한 위기감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다.

김 전 부회장은 "인류 역사에서 흙을 잘 관리하는 문명은 번성하고 그렇지 못한 문명은 쇠락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더스 계곡의 하라파 문명은 토양의 사막화 때문에, 고대 마야 문명은 토양 침식 때문에 몰락했다고 보는 학자들이 있다. 또 신라 멸망의 원인으로 토양 관리 문제도 언급된다"고 설명했다.

<삼국사기>에는 '신라 사람들이 솥으로 밥을 해먹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솥을 쓰면 연기 없이 편하게 취사·난방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나무 장작을 사용하는 것에 비해 산림 벌채가 늘어나고 그만큼 토양이 파헤쳐진다. 또 김 전 부회장은 "남북한의 경제력 차이가 산림녹화 성공 여부에서 비롯됐다고 보는 시선도 있다"고 덧붙였다.

토양을 보전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다른 나라의 사례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이 부회장은 “미국에선 토양을 보전하는 기관이 자연자원보호국(NRCS)으로 승격돼 있어서, 토양을 국가 자원으로 관리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1990년대에 시작된 친환경농업육성법을 통해 광범위하게 토양 관리를 지속하는 것은 물론, 전세계에서 두번째로 단일법을 제정해 토양을 법적으로 보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토양 보전을 위한 법적 기반과 함께 기술적 발전에 대한 대화도 오갔다. 2019~2020년 네덜란드에서 열린 세계 농업인공지능 대회에서 3등을 차지한 한국 디지로그팀의 팀장을 맡았던 서 교수는 인공지능을 통한 토양 보전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서 교수는 “인공지능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은 분류와 예측이다. 정확한 예측에 기반해 농약·비료의 사용량을 줄여 토양의 훼손을 막고, 항공 촬영 영상 분석을 통해 토양 침식 정도를 파악·분류해 이에 맞는 대응책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진행을 맡은 김 전 아나운서는 “먹거리 안전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곤 했는데, 새삼 흙이 얼마나 중요한 자원인지 깨달았다. 우리 스스로 흙을 아끼고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행 소감을 밝혔다. 시민이 자신의 일상 속에서 의식적으로 흙을 지키려는 일명 ‘흙기사’로서의 역할을 떠올려본 셈이다.

한편 제7회 흙의 날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기념식은 11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NBS한국농업방송과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의 기념사 후, 김태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과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의 축사가 방송될 예정이며, 농촌과 도시에서 흙을 지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10여분짜리 다큐멘터리와 함께 토크쇼가 방송된다. 올해 새로 선정된 농민 대표 4인이 흙의 날 선언문을 낭독하고, 각계각층의 시민이 자신이 생각하는 흙의 의미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이어서 ‘탄소중립과 디지털 토양관리’란 주제로 열리는 심포지엄 등도 중계될 예정이다.

이연경 기자 world@nongmin.com